

무안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교육

직원 역량강화교육을 통한 맞춤형서비스 지원

대상자 발굴·사후관리까지 통합서비스 제공

무안군은 지난 10월28일 지역사회 내 복지위기가구 발굴과 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해 전남복지재단과 연계하여 각 읍면 맞춤형복지팀장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업무담당자의 현장 중심 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한 대상자 발굴에서 사후관리까지의 사례관리에 대한 상세한 이해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운영교육으로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맞춤형복지업무 실무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빠짐없이 도움이 손길이 닿을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은 274명의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상담·



모니터링하고 있다.

무안=이기성기자



장흥지역자활센터, 노인맞춤돌봄 ‘호응’

독거 어르신 위한 ‘기미를 찾아서’ 호박죽 만들기 진행

장흥지역자활센터는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매월 1회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제철 음식 만들기 프로그램 ‘기미를 찾아서’를 진행하고 있다.

추석 명절 송편 만들기에 이어 지난 10월 28일에는 장흥군 남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호박죽 만들기’를 진행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각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에 모임 수 있게 된 어르신들이 장흥지역자활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 인력과 함께

직접 호박을 손질하고 새알을 만들어 가을철 별미인 호박죽을 만들었다.

이날 행사는 참석한 사람들 모두가 코로나19 예방 수칙인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며 안전하게 이루어졌다.

위수미 센터장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어르신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 후 “장흥군 어르신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두운 시기를 극복하고, 이웃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장흥군 대덕읍, 적극적인 복지행정으로 이웃사랑 실천

복지사각지대 이웃들...쌀 64포(20kg) 전달

장흥군 대덕읍(읍장 김철호)은 지난 10월 28일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복지사각지대 이웃들을 위해 햅쌀 64포(20kg)를 전달했다.

공공모금회 지정기탁금 사업비 352만원을 활용해 소외계층 사례관리가구에 햅쌀을 전달하며 기부문화 확산에 나섰다.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경로당에는 이용 어르신들을 위해 KF-94 마스크 및 손소독수를 관내 49개 경로당에 전달했다.

실외활동을 하며 외부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에게도 코로나19 예방과 미세먼지 차단에 효용이 높은 마스크를 지급했다.

이처럼 대덕읍은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철호 대덕읍장은 “생활이 어려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따뜻한 손길은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이웃사랑의 실천이 이어지도록 민관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지역복지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장애인 복지 증진 업무협약 체결

광주 광산구, ‘장애인과 함께하는 행복공동체 실현’ 목표

광주 광산구가 지난 10월 27일 구청에서 광주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와 장애인 복지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협약으로 ‘장애인과 함께하는 행복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장애인 근무 장벽 제거, 직장 생활 고충 해결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장애인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두 기관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겠다”라고 전했다.

광주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는



올해 4월 개소해 취업 후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상담, 노동법률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임형택기자

광주복지재단, 사례관리전문가교육 2차 기초과정

온라인 비대면 실시

재단법인 광주복지재단은 지난 10월 중 3차례에 걸쳐(16일, 23일, 29일) 사회복지 현장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사례관리전문가교육(기초과정)’을 온라인 비대면(ZOOM)으로 실시

했다. ‘사례관리전문가교육’은 광주복지재단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례관리학회가 공동으로 실시했다.

사회복지사 전문성 향상과 사례관리 전문 영역 구축을 위해 실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

준화된 사례관리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교육 이수 관리를 위해 자격관리 시스템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기초과정은 사례관리와 관련한 배경지식 학습을 통해 사례관리의 개념 및 운영체계 이해, 기본절차 학습 등으로 사례관리

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3일 동안 17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당초 교육의 효과성을 위해 대면강의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비대면(온라인)강의로 진행됐다.

재단은 오는 11월에도 사례관리전문가교육(3차)을 3차례(11월 6일, 12일, 20일) 진행할 계획이다.

기동취재본부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